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소망교회 담임



어느 교회에 약간의 수고바를 받고 교회 관현악단에서 연주를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다. 3년을 성실하게 자리를 지킨 자매가 내년부터는 그만두겠다고 하자 목사님은 아쉬움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자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 “저 교회 안 나갈 건데요” 아니 3년을 그 자리에서 아주 성실하게 연주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목사님은 의아해하면서 다시 묻자 “저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후부터 성도들이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들려지는 데까지 도달하기를 수 없이 강조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사실 듣기 위해서 수 많은 만남과 사람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자리를 지킨 사람일수록 예배드렸다는 사실에,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마음 가득한 보람을 채우고 돌아가곤 한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서 듣는다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앞에서 말한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어리석은 교회 담임이 될 위험이 아주 크다.

요즘 다윗과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왜 다윗의 가문

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삼하 12:13)
다윗은 나단의 폭로와 협박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이 들려졌다. 들려졌기에 그는 철저히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고 의로움을 고백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15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듣는 것을 넘어 들려졌을 때 일어나는 해결의 영광인 것이다.

그러나 들었지만 진실로 들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 수 많은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바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들려지지 않아서 오는 영적 부산물이다. 말씀은 들었지만 들려지지 않아 패망한 한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사울 왕이다.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던 사울은 연게디 광야에서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며 죽이지 않고 사울의 걸 옷자락만 베고 만다. 그리고 그 걸 옷자락을 보여 주며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더라고 하자 사울의 감동적인 말이 등장한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 보다 의롭도다.”(삼하24:17)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가. 그러나 이 말은 사울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감동적인 고백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했다. 이처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려지는 것은

“듣는 은혜, 들려지는 은혜”

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을까(삼하3:1)를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주목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는가(행 13:22)를 보면서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달랐을까? 그리고 지금부터 3천 년 전에 살았던 다윗과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 수 많은 이유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불뿔을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아니었다. 사울을 피해서 13년을 연게디 광야로, 하갈라 산으로 도망가던 때도 아니었다. 다윗의 위기는 사울이 죽고 다윗은 왕이 되어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그때가 다윗에게 위기였다. 다윗의 나라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갈 때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추악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천안공노할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은밀히 지은 죄를 폭로하고 더 나아가서 협박을 한다.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아내들을 대낮에 당신 아들들이 동침하는 참담한 일이 있을 것이다. 당신과 간음한 밋세바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도 죽을 것이다. 아니 어디까지 감히 선지자 주재에 왕의 숨겨진 죄를 폭로하고 협박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간결하고 진실했다. “다윗이 나단

더 중요함을 말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삶이 된다. 우리는 너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절망해야 한다. 내 죄를 보고 절망하면 나 같은 죄인과 살아온 당신이 고맙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다.

작년 7월에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주일 1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오시다가 돌아가셨다. 바로 전날인 토요일에도 카톡을 주고 받으며 잘 쉬어라. 건강하라는 안부를 주고 받았다. 그 목사님과는 양림동 ‘화강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옥상에서 라면 끓여먹고 연애 상담을 해주던 추억을 함께 나눈 목사님이였다. 입관하던 날, 참으로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거행되는 입관에 참석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손수건을 다 적시고 있을 때 목사님의 사진 위로 붉은 천이 덮여졌다. 그때 덮여지는 붉은 천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는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렇잖아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 눈물은 폭포가 되고 함성이 되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이제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는 감사와 영광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흉악한 존재이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의 보혈 때문이다. 그 보혈을 지나왔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1서 1장 7절)

목회산책



1년 동안 호주에 위혼을 다녀온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외국에 가니 한국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는게 실감나지 않나? K-pop을 부르고, K-drama를 시청하고, 한국 식당에 외국인이 넘쳐나고, 한국 제품들이 비싸게 팔리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자신이 살았던 세대를 기준으로 다른 세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 많은 오류와 오해가 생깁니다.

MZ세대를 경험하며 느꼈던 당혹감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MZ세대 뿐일까요?

위세대와의 소통은 더 어렵습니다. 일제식민지를 경험하고, 광복의 기쁨과 전쟁의 참상 그리고 그 이후 혹독하게 경험했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에서 자라고 어떤 기준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도 위세대가 겪은 고난과 수고를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켜온 이들의 헌신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잣대로만 현재를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의 자리를 마련하며, 작은 실천으로 세대 간

다른 세대와 소통하기

국뽕이 생기지 않아?”

그러나 딸은 제가 예상하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난 그렇게 뭐가 엄청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좀 신기하긴 했지만 국뽕이 차오를만큼은...” 솔직히 딸의 대답에 실망했지만 금방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저와 달리 선진국을 살고 있고, 수준 높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위상을 몸으로 이미 체화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아닌, 한국가전제품이 전열대의 가장 찬 곳에 위치했던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에 딸은 격세지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딸에게 지금의

나라의 설움을 듣고 지금을 만든 어른 세대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라가 있게한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힘을 다해 지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존경과 그들의 명예를 지켜줄 때 소통이 시작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가 있지만 먼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겸손한 인정과 감사, 그리고 진심 어린 경청이 있을 때 비로소 세대는 마주 설 수 있고, 교회는 하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 일 교 목사
광주제일침례교회 담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직장인콜링 100일 목상집_3.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나로 인해 일터가 복받는가?

많은 직업인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일터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종종 토로한다. 상황을 탓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곤 한다. 직업인이었던 요셉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 형들에게 팔려 타향에 와서 노예 생활을 했다. 또 그의 업무는 애급 천위대장 보디발 집의 '집안일과 밭일' (5절)이었다. 규모가 꽤 컸을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다 책임졌다는 뜻이다. 또한 주인의 아내까지 젊고 준수한 요셉을 잔뜩 만족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창세기 기자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2-3절). 3절에 보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더라”고 한다.

>>> 일하는 사람의 기도

저 때문에 제가 일하는 우리 일터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터의 복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일하게 도와주소서.

대한 예수교장로회

하 남 교회

표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기적을 만들어 내는 복의가문입니다 (1:12)

주일오전 1부 7:30

주일오전 2부 9:30

주일오전 3부 11:10

주일오전 4부 12:50

주일오전 5부 2:30

주일오전 6부 7:00

담임 임준태 목사

623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76-12 (대표전화: 062951-9999 FAX: 062952-5304)

대한 예수교장로회

사랑의빛교회

표어: 예수사랑 가족사랑

주일오전 11:00

주일오전 1:30

주일오전 7:00

금요일기도회 7:30

담임 이철재 목사

6224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전동 124-19 (도전동 356-11) (대표전화: 062371-6206)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 창 교회

표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1:30

주일오전 7:00

담임 김승현 목사

62287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원동 291(신창동) (대표전화: 062953-537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한빛교회

표어: '일어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사 60:1) 사랑의가문입니다. 사랑의가문입니다.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2:00

주일오전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희성 목사

61746 광주광역시 남구 노수동 41번길 31(노수동) (대표전화: 062476-8831)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서남교회

표어: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골 3:15) 사랑의가문입니다.

주일오전 1부 7:00

주일오전 2부 9:00

주일오전 3부 11:00

주일오전 2:00

주일오전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조태현 목사

61657 광주광역시 남구 천마로 12 (대표전화: 062652-1004 FAX: 062671-5313)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광명교회

표어: 주여 구하리, 기려 열망으로 주의 사랑 받자

주일오전 11:00

주일오전 2:00

주일오전 7:00

주일오전 12:30

주일오전 12: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전 5:00

담임 고석현 목사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동산로 43 (대표전화: 062366-3058 FAX: 062369-3058)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은평교회

표어: 사랑의 빛 살도 성교 구제 장학 고아원입니다 (12:12)

주일오전 10:40

주일오전 1:40

주일오전 7:15

주일오전 8:30

주일오전 5:00

담임 김병철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구룡동 54-1(구룡동) (대표전화: 062375-7962 FAX: 062375-7962)

대한 예수교장로회

새 회 망 교회

표어: 삶에 생명을 주는 교회

주일오전 1부 7:30

주일오전 2부 9:00

주일오전 3부 11:00

주일오전 1:50

주일오전 7:30

새벽기도회 5:30

담임 허태호 목사

622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천안동 79-1(천안동) (대표전화: 062371-9190 FAX: 062372-9190)

대한 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표어: '일과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교회(사 1:18)

주일오전 1부 8: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1:30

주일오전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사라 목사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 11번길 47 (대표전화: 062953-4620 FAX: 062953-5522)

대한 예수교장로회

서 광 주 교회

표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교회' (골 2:1)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7:00

주일오전 7:30

주일오전 5:00

담임 조규성 목사

61649 광주광역시 남구 복합로 99번길 10 (대표전화: 062365-7004 FAX: 062365-7004)

대한 예수교장로회

동서남북교회

표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산

주일오전 11:00

주일오전 2:00

주일오전 12:30

주일오전 7:00

주일오전 8:30

주일오전 9:00

주일오전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혜영 목사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전동 77-25 (대표전화: 062956-0114 FAX: 062321)

대한 예수교장로회

장성제일교회

표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 63:1)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3:00

주일오전 7:30

담임 이영수 목사

57222 장성군 장성읍 장성로 6 (대표전화: 061333-4551 FAX: 061333-4552)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원벨엘교회

표어: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받으라' (사 60:2)

주일오전 11:00

주일오전 1:30

주일오전 7:00

주일오전 8:30

주일오전 5:00

담임 김형수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동 113번길 7-1 (문정동) (대표전화: 062226-1009)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산수교회

표어: 새 삶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사 40:3)

주일오전 1부 7:50

주일오전 2부 9:00

주일오전 1:30

주일오전 7:30

담임 임준수 목사

61411 광주광역시 남구 동문로 173 (대표전화: 062263-0623 FAX: 062264-8750)

대한 예수교장로회

여수영락교회

표어: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주일오전 1부 8: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1:30

주일오전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성기 목사

50754 전남 여수시 신월로 668-1(여수동) (대표전화: 061641-6510 FAX: 061641-651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백운교회

표어: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고전 12:1)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3부 2:00

주일오전 7:30

주일오전 5:00

주일오전 4:00

담임 박정호 목사

61660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 7번길 8 (대표전화: 062951-0388 FAX: 062951-6228)

대한 예수교장로회

봉황임마누엘교회

표어: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지역 선교사

주일오전 11:00

주일오전 7:00

주일오전 8:00

주일오전 5:30

담임 박병철 목사

나주 봉황면 죽곡길 2(봉황면) bbc-1212@nmail.net (전화: 010-6632-1033(박병철 목사))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남부교회

표어: 참 교회가 있는 행복한 교회 (행 2:42)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3:30

주일오전 7:00

주일오전 8:30

주일오전 7:30

주일오전 5:00

담임 서한국 목사

61614 광주광역시 남구 문정로 62번길 7 (대표전화: 062352-9191 FAX: 062352-9191)